

중국, 2008년 LCD TV 54% 급증

디스플레이뱅크, 1500만대로 세계 15% 점유 ... 베이징 올림픽 특수로

베이징(Beijing) 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LCD TV 시장이 전년대비 54% 이상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

2월20일 디스플레이뱅크에 따르면, 2008년 중국 LCD TV 시장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155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2007년 중국의 LCD TV 시장은 1000만대 규모였지만 2008년에는 올림픽 특수로 54% 이상 급성장하게 된다는 것으로, 1550만대는 전세계 LCD TV 시장의 15%에 해당하는 물량이다.

디스플레이뱅크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비수기인 1/4분기에도 TV 패널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, 가격도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.

한편, 2008년 중국 LCD 모니터 시장은 2600만대로 25% 성장하고, 노트북 시장 역시 23% 성장한 700만대로 탄탄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.

디스플레이뱅크 관계자는 “중국 LCD TV 시장은 2011년까지 36.5%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”고 말했다.

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, LG필립스LCD 등 디스플레이 생산기업들은 베이징 올림픽 특수를 만끽하고 있다.

LG필립스LCD 관계자는 “중국 시장에서 30인치대 LCD 패널 수요가 워낙 커 생산라인을 완전가동해도 모자랄 지경이며, 40인치대 수요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2/20>